

전남 바다 해조류에서 인류의 미래 대안을 찾다

미국 정부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 1박2일 목포·해남·완도 방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대형 해조류 양식 프로젝트 공동 추진
탄소 흡수·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핵심 기술 국제 특허 확보 나서

미국 정부부처가 한국 해양수산부의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손을 잡고 전남 바다에서 대형 해조류 양식과 이를 통한 탄소 흡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핵심 기술의 실증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들의 실험은 해조류 양식의 본고장인 전남에서 이뤄지며, 성공할 경우 세계 미래를 좌우할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향후 해조류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로 부상하고 석유화학을 대체하는 바이오화학, 바이오플라스틱, 헬스케어 소재, 대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김 수출 등 해조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원물 가격이 갈수록 높아져 우선 양식장의 확대 지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에블린 왕(Evelyn N. Wang)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ARPA-E) 원장을 비롯한 미국 정부 및 대사관 관계자 5명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운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등과 함께 목포, 해남, 완도 등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현장 탐방했다. 이들은 목포의 (주)대상을 찾아 한국의 해조류 가공 기술을 살펴보고, 해남으로 이동해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에서 해조류 양식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봤다. 해조류연구소는 해조류 보존 및 관리 기술, 해조류 육종 및 양식 기술, 해조류 신제품 개발 및 산업화 등을 개발·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해조류 연구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에블린 왕 원장은 "전남이 한국 해조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뛰어난 해조류 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남에서 하루를 머문 후 이틀째인 18일 해조류의 핵심 거점인 완도를 찾아 신우철 완도군

수 등과 함께 직접 다시마 양식장을 찾은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외해에서의 해조류 대규모 양식의 가능성에 대해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해조류, 해양 전공 교수 및 연구원과 외해 양식 기자재 구축 방안, 첨단화 구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완도군의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를 찾아 김춘성 조선대 총장, 서상우 서울대 교수, 임현규 인하대 교수 등과 '해조류 바이오매스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갖는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23년 3월 미국 측이 MARINER(Macroalgae Research Inspiring Novel Energy Resource, 새로운 에너지원에 영감을 주는 대형 해조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 주미대사관, 국립해양대기국(NOAA) 등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국내 전문가 검토회의, 기획 연구 등을 진행했으며, 11월 범부처 글로벌 R&D 추진 전략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KIMST와 ARPA-E는 이를 진전시켜 품종 개량, 외해 양식 기자재, 환경도 델링 등 해조류 생산기술과 바이오리파이너리, 탄소 저장 등 블루카본 등 활용 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화시켰다. 오는 19일 세종에서 KIMST와 ARPA-E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에는 본격적인 투자, 실증 연구 수행, 상용화를 위한 기업 참여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투자 규모는 3000만 달러 수준으로, KIMST는 이에 맞춰 4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 오는 6월 KIMST·Arpa-E 공동 전문가 포럼도 개최한다.

오운열 KIMST 원장은 "이번 한미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 및 실증, 상용화의 과정은 우리나라 양식 기술이 유럽과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바다에서 대형 해조류를 양식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세계적 미래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에블린 왕(Evelyn N. Wang)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ARPA-E) 원장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오운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박명직 본부장 등이 17일 오후 목포의 (주)대상 김 공장을 찾아 한국의 해조류 가공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 가공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상속세 완화 시사...“과도한 할증과세”

“세계 탕 강소기업 못 키워”...은행권 이자 잔치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기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거듭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금리를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두달 만에 또 온 미국 핵추진항모...한미일 해상훈련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개월 만에 다시 한반도 근해로 들어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

합참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공함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과 함께 일본에서 육박기형상의 해상자위대 깃발을 단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이 참가해 총 9척이 함께했다.

통상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는 5척 안팎이 동원되는데, 9척은 해군이 파악 가능한 기록 기준으로

는 역대 최대 규모다.

칼빈슨함이 한반도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칼빈슨함은 니미즈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6.4m 규모이며 배수량 약 10만t을 자랑한다.

이 항모에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 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 약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번 훈련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연합뉴스

기델 곳 없어진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들 ▶6면

피치클락·베이스 확대, KIA 뛰는야구 속도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오대산 선재길을 걷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0,00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에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0,00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Mercedes-Benz Certified